

## 백제문화의 원류를 찾아서

### In Search of Origins from the Culture of Backjae Dynasty

김동수 / 백제예술대 교수  
by Kim Dong-Su

#### 1) 백제는 어떤 나라였는가?

백제는 B.C. 18년에 온조가 한강 북쪽인 하남 위례성에 도읍하였다가 고구려의 침입을 받아 웅진(공주)으로 천도(475)하였으나 성왕은 나라의 중흥을 꾀하고자 국호를 남부여(南扶餘)로 고치고 사비성(부여)으로 수도를 옮겼다. 그러나 나당 연합군에 의해 660년 패망하였다.

「삼국사기」에 의하면 백제는 온조가 고구려 시조 주몽의 아들로서 남하하여 건국했다고 했지만, 중국의 「위서」에는 백제가 고구려와 함께 부여에서 갈라져 내려왔다는 기록을 보이고 있다. 아무튼 백제는 북방(만주)에서 내려온 나라가 아닌가 한다.

국토가 바다와 평야를 끼고 있어 다채로운 문화를 폭넓게 수용할 수 있는 지정학적 특성으로 인하여 백제가 한창 흥성하던 시기(498-526) 백제는 일본-대만-필리핀-베트남-캄보디아-인도-페르시아 등 방대한 교역망을 갖고 있었다. 문화 또한 백제의 기원설과 관련된 북방적 요소와, 자연환경과 풍토에서 비롯된 남방적 요소, 그리고 중국 남조와 문화 교류를 하면서 고대 아시아 무역의 중심지로서 찬란한 문화의 꽃을 피워 고구려와 신라, 특히 일본의 아스카(飛鳥)문화에 크게 영향을 끼쳤던 문화 왕국이었다.

하지만 이러한 백제 문화도 승리자의 통치 이념에 의해 장구한 세월을 걸쳐 그 흔적들이 대부분 왜곡되면서 역사의 현장에서 인멸(湮滅)되고 말았으니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육당 최남선은 「삼도고적순례(三都古蹟巡禮)」에서 백제 고도(古都)탐방 소감을 피력하면서 “부여에선 평양처럼 큰 시가지도 보지 못하고, 경주와 같은 풍부한 유물들을 대할 수 없어 부여를 더욱 쓸쓸히 느끼게 합니다만은 고적다운 고적은 아마도 우리 부여라 할 것입니다.”라고 적고 있다. 그리고 이어 “백제의 감정이 보드랍고 정답고 알뜰한 맛은 부여 아닌 다른 옛도읍지에서는 도무지 얻어 맞볼 수 없는 것”이라고 끝까지 사라져버린 백제 왕국에 대한 아쉬움과 연민의 정을 육당은 떨치지 못했다.

#### 2) 백제의 문학

기름진 들녘과 바다를 끼고 풍족하게 살아왔던 백제인들은 평화롭고 소박한 그들의 성품만큼이나 곧고 아름다운 이야기를 많이 전해 주고 있다. 「삼국사기」에는 총 49명의 인물들이 소개되고 있는데 그 중 백제인은 단 3명. ‘도미의 처’, ‘계백 장군’, ‘흑치상지’에 불과하다.

‘도미(都彌)의 처’를 먼저 소개하면, 도미의 아내는 아름답고 절개가 있어 모두들 일컫는 바가 되었다. 백제 개루왕이 도미의 아내가 아름답다는 말을 듣고 종자(從者)를 왕으로 가장하여 집에 찾아 가 감언이설로 유혹하려 하자 종 하나를 아름답게 꾸며 대신 방으로 들어 보냈다.

후에야 왕이 그것을 알고 도미의 눈을 빼고 강에 버렸다. 그 후 도미의 처를 다시 불러 취하려 하니 지금은 몸이 더러우니 며칠 후에 다시 오겠다고 도망쳐서 배를 타고 내려가다 마침내 그곳에서 남편과 만나게 되어 일생을 함께 했다.

개로왕이 미색을 탐하여 갖은 유혹과 협박으로 꺾어 보았지만 끝내 권세와 물질에 굴하지 않았다는 이 열녀설화는 정조(1797)에 의해 「오륜행실도」에 그림과 더불어 그 내용이 소개될 정도로 한국 여인의 고결한 절개의 표상으로 오늘에까지 전해져 오고 있다. 이러한 백제 여인들의 지아비 섬김의 망부(望夫)정신은 「고려사」지 권 25 삼국속악 백제조에서도 보이고 있다.

장사(長沙茂長) 사람이 출정(出征)하여 기한이 지나도록 돌아오지 않매 그 아내가 선운산에 올라 남편을 기다리며 불렀다는 <선운산가(禪雲山歌)>, 광주(光州) 무등산에 성을 쌓고 백성들이 안락히 살이감을 노래한 <무등산가(無等山歌)>, 신라말 도적이 크게 일어나 이 산(노령산맥 서남단 고창과 장성 사이 고개)에 웅거하면서 양가의 여자가 많이 잡혀 있는데 이 때 남편이 와서 구해주지 않음을 풍유해서 부른 <방등산가(方等山歌)>, 그리고 구례현에 가난하여도 부도(婦道)를 다한 자색이 고운 여인이 있었는데 백제왕이 그 아름다움을 듣고 미색을 탐하려 하였으나 죽기를 맹세하고 끝내 정절을 지켰다는 <지리산가(智異山歌)> 등이 그것이다. 이러한 백제 여인들의 ‘열(烈)’의 정신이 이후 열녀 춘향 정신으로 이어져 오늘에 전해져 오고 있음은 결코 우연이 아닌 듯 싶다.

하지만 이러한 노래들도 그 내용만 여러 문헌에서 위와 같이 전해올 뿐 가사를 알 수가 없다. 그런데 <정읍사(井邑詞)>가 유일하게 가사 전문(全文)을 전해져 오고 있어 당시 백제인들의 정신적 거점을 간취할 수 있음은 다행한 일이다. 「고려사」에선 그 가창(歌唱) 동기에 대하여 ‘전주의 속현인 정읍현 사람이 행상차 나가 오래 돌아오지 아니하므로 그 아내가 산 위의 바위에 올라 바라보며 그 남편이 밤에 다니다 어떠한 해나 입지 않았나 걱정하여 그것을 진흙물의 더러움에 비겨 노래

했다.'라고 적고 있다.

돌하 노피곰 도드사 / 머리곰 비취오사라  
 저재 내려신고요 / 존더를 드덕올세라  
 어느이다 노코사라 / 내가는 더 정그를 세라  
 -〈정읍사〉악학궤범에서-

당시의 남녀상열지사(男女相悅之詞)와는 상이하게 달리 부부 윤리의 전범(典範)으로 내세울 만한 노래다. 그래서인지 이 노래는 고려에서 이조에 이르기까지 나라의 잔치나 정재(秀才-대궐에서 잔치 때 부르던 춤과 노래)에서 국가의 정식 가악으로 불리워졌다. 그만큼 노래에 담긴 '열(烈)'의 정신을 높이 샀던 노래다.

뿐만 아니라 같은 무렵의 향가인 〈처용가〉에 나타난 여인과 〈정읍사〉의 여인이 대조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우선 작품의 공간 배경이 다같이 '밝은 달밤'이고 여기에 두 여인이 동시에 등장하고 있다. 그러면서 한 여인은 그 시간에 외간 남자와 밤을 보내고, 다른 한 여자는 산에 올라 행상 나간 남편의 무사귀환을 천지신명께 빌고 있다.

처용가 - 밝은 달밤 외인과 정사(관능과 쾌락)  
 정읍사 - 남편의 무사 귀환을 빤(애모와 기원)

백제 여인들의 지아비 섬김의 정신이 얼마나 지극하고 정성스러웠던가 지금도 정읍에 가면 그 자리에 망부석이 남아 그 뜻을 전해주고 있다.

### 3) 백제의 미소

충남 서산군 운산면 용현리 가야산 암벽에 새겨져 있는 백제 시대의 마애 삼존 불상의 미소가 백제인의 얼굴이고 표정이다.

서산 마애불의 특징이자 가장 큰 매력은 저 한 인간적인 미소에 있다. 6~7세기경 동북 아시아 불상의 일반적인 특징은 한결같이 미소를 띠고 있는데 이는 절대자의 친절성을 극대화시킨 상징이라고 한다. 그러나 점차 불상에서 이 미소가 사라지고 대신 절대자의 근엄성이 강조되면서 입체감보다 평면감에 치중하면서 웃음과 몸매의 선 또한 날카롭고 엄격한 직선이 많아졌다. 그런데 서산 마애불을 비롯한 백제의 불상들에선 이와는 달리 인간미가 넘치는 소박미가 있다.

김원웅은 「한국 고미술의 미학」에서 백제 불상의 외형적 특색은 그 둥글고 복스러운 얼굴에 있으며, 그 얼굴에는 천진난만하고 낙천적인 소녀같은 웃음이 흐르고 있어 서산 마애불을 다음과 같이 '백제의 미소'라 명명하고 있다.

"백제 불상의 얼굴은 현실적이며 실존하는 사람을 모델로 쓴 것 같은 느낌을 주고 있다. 그 미소 또한 현실적이다. 군수리 출토 여래좌상은 인자한 아버지가 머리를 앞으로 내밀고 어린아이들의 이야기라도 듣고 앉은 것 같은 인간미 흐르는 얼굴과 자세를 하고 있어서 백제 불상의 안락하고 현실적인 특징을 단적으로 표시하고 있다. 그런 중 가장 백제적인 얼굴을 갖고 있는 것은 작년(1959)에 발견된 서산 마애불이다. 거대한 화강암 위에 양각된 이 삼존불은 그 어느 것을 막론하고 말할 수 없는 매력을 가진 인간미 넘치는 미소를 띠고 있다. 본존불의 둥글고 넓은 얼굴의 만족스런 미소는 마음 좋은 친구가 옛 친구보고 기뻐하는 것 같고, 그 오른쪽 보살상의 미소도 형용할 수 없이 인간적이다. 나는 이러한 미소를 '백제의 미소'라고 부름을 제창한다."

서산 마애불의 우수성은 그 온화하고 천진난만한 미소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제작 기법 또한 놀랄만큼 과학적 이론을 배경하고 있다. 아외부각의 요구에 맞게 음양관계와 사각 거리 관계를 고려하여 얼굴은 높게 부각하고 아래로 내려오면서 점차 낮은 부각으로 처리하여 입체감과 조형미를 더해 주는 조각기법을 취하고 있다.

### 4) 백제 건축의 미학

백제의 대표적 건축물로는 익산의 미륵사지 석탑과 부여의 정림사지 5층 석탑을 들 수가 있다. 무왕은 부여의 토착 세력을 꺾을 요량으로, 혹은 미래불을 갈망하는 토착민들의 염원을 선무(宣撫)하기 위해 자기의 성장 거점인 금마에 왕궁리의 별궁과 미륵사를 지었다고 한다.

원래 미륵사의 가람 배치는 당시 삼국에서도 다른 예가 없는 3탑 3금당(본당) 3회랑의 특이한 구조이다. 본래 백제의 사찰은 1탑 1금당식이라고 해서 남북 일직선상에 남문, 중문, 탑, 금당, 강당, 승방으로 이어지고 중문과 강당을 'ㄱ'자로 있는 회랑만으로 짜여진 소위 칠당가람 방식이 보통이었다. 하지만 미륵사의 가람 배치는 1탑 1금당의 기본축을 그대로 살리면서 여기에 동서로 별원(別院)을 붙여 - 날개(Wing)를 달아 - 규모를 확대하고 있다. 보다 장중하고 화려한 멋의 변화 기법이 아닐 수 없다.

원래 미륵사지에는 3기의 탑이 동서로 나란히 배치되어 있었는데 다 무너져 버리고 서탑(국보 11호)만 일부 남아 있다. 그러나 남아있는 미륵사 서탑을 통해서나마 백제 건축의 구조적 특징과 세련미를 만날 수 있었음은 참으로 다행한 일이다. 그것은 압도하는 스케일의 중량감, 적당한 비례의 배흘림 기둥, 정연한 체감률로 안정감을 주는 중층 구조, 우아한 세련미에 있다. 하지만 미륵사탑의 아름다움의 백미는 아래래도 추녀에 있다. 거의 직선으로 그어가던 반듯한 처마가 추녀에 이

르러서는 살포시 반전하는 그 맵시가 여간 고운 것이 아니다.

요즈음 건축가 중에서 전통을 계승한답시고 어 거지로 한옥의 지붕선을 이용한 라인을 보면 추녀 끝을 슬쩍 올 리긴 올렸는데 그것이 '살포시 반전하는 맵시'가 아니라 '벌렁 뒤집어지는구나' 하는 불안감만 감돈다.

그런데 저 백제인들의 비결은 무엇이었을까? 그것은 추녀 끝을 반전시키되 그냥 끌어올리는 것이 아니라 약 간 두께를 주면서 반전시킨 점에 있다. 그러니까 위로 올라가는 동세(動勢)가 위에서 누르는 무게에 눌러 긴장감있고 안정감있 는 가운데 변화가 일어나고 그 변화가 끊고 멋진 미적 가치로 전 환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유흥준 씨는 그의 「나의 문화 유산답사 기」에서 밝히고 있다.

다음은 부여에 있는 정림사지 오층 석탑의 건 축 미학이다. 1층은 성큼 올라서 있고 2층부터 5층까지는 알맞 는 체감률로 점차 줄어들고 있어 그 늘씬하고 장중한 맛이 아름답 기 그지없는 석탑이다.

고유섭은 <조선탑과연구>에서 정림사의 오층 석탑의 미는 소재정리의 규율성과 더불어 율동의미를 나타내 고, 각 층의 수축성과 더불어 아주 운문적인미를 갖고 있다고 했다. 소재 조합의 정제미뿐만 아니라 소재 자체의 세련미도 갖고 있다. 더욱이 지붕돌은 낙수면의 경사가 거의 완만하여 수평 으로 뻗다가 전체 길이 10분의 1 되는 곳에서 약간의 반전을 나타내어 강력한 장력(張力)을 보이고 있다. 또 각 지붕돌 끝을 연결하는 이등변삼각형의 사선은 약 81도를 이루어 일본 법통사 오층탑과 거의 같은 안정미도 볼 수 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정림사탑의 아름다움의 요 체는 체감률(體感律)에 있다. 등비(等比) 급수 또는 등차(等差) 급수적 체감이 아니라 기저부 크기의 기본 되는 길이에서 발전 하는 등할적(等割的) 구성으로 이루어졌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1층에서 5층까지 각층의 높이를 보 면 층마다 10분의 1씩 줄어들어 결국 1층은 6.9척, 2층과 5층 을 더한 것이 7척, 3층과 4층을 더한 것이 6.9척이 되므로 대략 7척과 맞아떨어진다. 또 1층부터 5층까지 탑신의 폭을 보아도 1 층이 7척이고, 2층과 3층을 더한 것이 7척, 2층과 5층을 더한 것이 7.2척이므로 이 또한 대충 7척과 맞아떨어진다.

그런데 모든 수치에서 5층이 관계되면 반드시 다른 층보다 약간씩 커짐을 알 수 있는데 유흥준 씨에 의하면 그 것은 5층은 4층까지의 체감률을 적용하지 않고 일부러 약간 크게 만들었다는 주장이다. 5층이 약간 커야 절집 마당에서 볼 때 도면상에서는 7대 7.2로 나타나지만 실제 느끼는 체감으로는 7 대 7이 된다는 것이다. 실제 체감 비례를 위하여 도면상의 비례 를 파기한 백제인들의 높은 미적 안목이 아닐 수 없다.

## 5) 왜(倭)에 끼친 백제 문화

삼국의 발달된 학술과 문화가 일본에 전파되어 그들의 고대 문화를 한 차원 높은 단계로 올리는데 큰 역할을 한 것은 사실이다. 그 중에서도 가장 커다란 역할을 한 것은 백제였다. 그것은 백제가 삼국 가운데 가장 일본과 정치적으로 연결되어 친선 관계가 유지되었기 때문이었다. 4세기 중엽인 근초고왕 때 아직기가 일본에 사신으로 건너가 일본 태자에게 한자를 가르친 스승이 되었고, 혜총(惠聰)등의 고승은 불교 문화를 그곳에 전파 이식하였다. 이어 왕인(王仁) 박사가 건너가 「논어」와 천자문, 경서를 가르쳤다. 백제가 수도를 남으로 옮긴 이후부터는 문화 전수가 보다 활발해졌다. 무녕왕 때에는 오경(五經)박사 단양이(段楊爾), 고안무(高安茂)를 일본에 보냈고, 성왕 때에도 5경박사(經博士), 역(易)박사, 역(曆)박사, 의(醫)박사 등을 보내 그들에게 유학 및 여러 학술과 기술을 가르치도록 하였다. 특히 성왕은 노리사치계(怒唎斯致契)를 보내 처음으로 일본에 불교를 전하였고, 위덕왕 때(554)에는 악사 미마지(味摩之)를 파견하여(일설에는 무왕 13년) 백제가 멸망할 때까지 일본 상류층 어린이들에게 기악무(伎樂舞)를, 그리고 일본 전통 궁중 음악인 가가꾸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당시 기악에 쓰던 가면이 지금도 일본의 동대사(東大寺) 등 여러 절에 보관되어 있다. 무왕 때는 또 관록을 보내어 력(曆), 천문지리, 둔갑방술서(遁甲方術書)를 전하였는데 그는 뒤에 일본의 승정(僧正)에 올라 일본 불교의 기둥이 되었다.

이와 같이 백제는 유교 불교를 비롯하여 의학, 천문지리, 음악양행, 농업 및 공예, 미술, 건축, 음악 등 다방면에 걸친 학문과 기술을 일본에 전하여 고대 일본문화 형성의 원동력이 되었다.

## 6) 칠지도(七支刀)와 백제의 천하관

일본 奈良縣 天理市 이소가미신궁(石上神宮) 안에는 단철(鍛鐵)로 만든 특이한 형태의 칼 한 자루가 엄중하게 봉안되어 있다고 한다. 길이 75cm의 양날에 몸체 좌우로 나 무가지처럼 자그마한 칼이 세 개씩 뻗어 있어 일명 칠지도라 한다. 칼몸 앞뒷면에 모두 61자의 글이 새겨 있어 이 칼이 발견(1874)된 이래 지금까지 그 문구 해석을 싸고 논쟁이 끊이지 않고 있다. 그만큼 양국 간에 역사적 비중이 크게 걸려 있는 유물이기 때문이다.

일본에선 그들의 역사서인 「일본서기」 신공 52년조(372)에 백제의 근초고왕이 사신 구저를 통하여 '칠지도 한 구(口)와 칠자경(七子鏡) 1면(面) 및 각종 중보(重寶)를 바쳤다.'는 기록을 들어 이전인수격으로 '임나일본부설(任那日本府設)'과 더불어 일본이 오히려 백제의 종주국이었던 것처럼

자의적 해석을 한 이들도 있다. 하지만 자세히 그 문맥을 살펴보면 그것이 아님을 알 수 있게 된다. 이도학은 「새로쓴 백제사」에서 칠지도에 새겨진 글을 다음과 같이 해석하면서 이 칠지도야말로 당시 백제 왕국의 번성과 그 휘하에 거느린 일본과의 위상을 드러낸 증거로 제시하고 있다.

(앞면) 泰〇四年〇月〇十六日丙午正陽造百鍊 七支刀〇  
酸百兵宜〇供侯王〇〇〇〇作

(뒷면) 先世以來未有此刀百濟王世〇寄生聖畜故爲倭  
王旨造傳〇後世

(앞면) 태화 4년 5월 16일 병오일 정오에 백번 단련한 강철로 칠지도를 만들었는데, (이 칼을 소지하면) 모든 병해를 물리칠 수 있으며 순탄하게 후왕으로 나아가는 게 마땅하다. (아무개가 이 칼을) 제작하였다.

(뒷면) 선세 아래 이 칼이 없었는데 백제왕 치세에 기묘하게 얻은 성스러운 소식이 생기고로 왜왕을 위하여 만든 뜻을 후세에 전하여 보리라.

우리는 이 칠지도를 통하여 나무가지마냥 끊임 없이 뻗어가고자 하는 백제 왕국의 사방 천하관과 수목가지마냥 하늘로 향하고자 하는 초월사상을 엿보게 된다. 칠지도의 제작시점인 369년 백제가 마한 전역에 대한 지배권을 확립한 사실과 다음 단계로써 지배의 완결을 뜻하는 제의권(祭儀權)까지 장악해가는 왕자로서 칠지도를 제작하여 3년 후(372) 왜왕에게 하사하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 여기에서 우리는 중국과 구분되는 또다른 백제인의 천하관, 그것은 백제왕은 광대무변한 세상의 중심에 군림하고 있다는 우주관에 다름 아니다.

## 7) 백제의 정신을 찾아서

백제는 1천4백년전 망했다. 우리는 이제까지 멸망한 비운의 나라로만 백제를 생각했지 백제가 이룩한 문화적 성숙에 대하여는 말하려고 하지 않았다. 백제는 678년 중 약 70%의 기간을 하남 위례성에서 보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여와 공주에서 슬픔의 자취만을 찾고 있을 뿐 하남 위례성에 대해서는 아예 그 존재조차 인식하지 않고 있다가 최근 몽촌토성을 발굴하면서 하남 위례성터의 위치에 대해 관심을 갖기 시작하였다. 백제시대 질그릇과 기와, 성곽 등 많은 유물과 유적들이 수습, 확인되면서 몽촌토성이 곧 하남 위례성터가 아닐까 하는 학설들이 나오고 있다.

와당(瓦堂)에 새겨진 문양(紋樣)에서도 백제인의 모습을 찾아 볼 수 있다. 와당에는 당대인들의 정신적 이상이나 국민성이 잘 드러나 있기 때문이다. 고구려의 꽃무늬 끝은

날카롭고 직선적이며 강건함을 특징으로 하고 있는데 비해 백제의 와당은 중국 남조 문화의 영향인 듯 보다 온화하고 우아한 여성미가 신라의 안정되고 치밀한 구도와 구분되면서 순박한 백제미의 특성을 드러내주고 있다.

어디에서 우리는 또 백제 정신을 찾을 것인가? 「삼국사기」에서 언급하고 있는 백제의 이야기에서 그 정신적 원형이 숨어 있지 않을까 한다.

먼저 '도미의 처'다. '도미의 처'는 '정절의 표상'으로 「춘향전」을 거쳐 오늘에까지 이어져 오고 있는 우리의 전통적 정서의 하나요, 한국 여인들의 미덕이 아닐까 한다.

다음은 5천의 군사로 나당 18만을 대적하다 황산벌에서 전사한 '계백장군'의 살신보국 정신이다. 이는 임란(壬亂) 때 '약무호남 시무국가(若無湖南 是無國家)'를 외치며 멸사봉공한 충무공의 호국정신 바로 그것이 아니었던가?

어떤 이들은 백제의 미학을 한 마디로 부드럽다, 온화하다, 친숙하다, 우아하다는 말로 설명하고들 있지만 「삼국사기」 백제본기 온조 왕조편을 보면 춘정월(春正月)에 궁실을 새로 지었는데 '검소하지만 누추하지 않았고, 화려하지만 사치스럽지 않았다(儉而不陋 華而不侈)'라는 글이 있다.

“나는 그것이 백제의 정신이고, 백제의 마음이고, 백제의 아름다운 미학이라고 믿고 있다.”고 유홍준은 말하고 있다. 이것이 바로 부드럽고 아름답고 친근한 한국의 자연을 닮은 백제인의 마음이고, 또한 한국인의 사유의 세계가 아니었던가 한다.